

February 3, 2025

관세청, 「2025년 관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I. 개요

관세청은 2025년 1월 21일 “3대 목표(① 국가번영, ② 사회안전, ③글로벌 무역스탠다드 선도) 5대 분야 15개 중점 추진과제”를 골자로 하는 「2025년 관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II. 배경 및 개요

업무 계획 중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관세행정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세 내용은 Ⅲ 주요내용 참고)

- ① 보호무역장벽 해소와 경제회복 총력 지원을 통한 대내외 불확실성 극복 및 “국가번영” 지원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
- ② “사회안전” 수호를 위해 2025년에도 국민안전 위해물품 차단과 경제안보·공정무역 질서 확립과 같은 본연의 임무를 빈틈없이 수행
- ③ 글로벌 중추국가로 부상한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제사회의 기대에 걸맞게 “글로벌 관세행정”을 선도하고 국제 연대를 지속 확대

III. 주요내용

1. 국가번영 분야 관련 주요사항

1) 보호무역장벽 해소

긴급관세 부과, 수출입쿼터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작동하지 않을 때 대체거래선 발굴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C-EWS) 분석기능을 강화합니다. 또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신 환경규제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시스템(FTA-PASS) 등 활용, 탄소 배출량 관리시스템을 개발 및 기업에 무료 보급합니다.

분야	중점 추진과제	내용
보호무역장벽 해소	관세 무기화 대응 강화	· FTA 협상단계별 대응전략 마련 · 관세청 조기경보시스템 업그레이드 · 무역통계 생산·제공 효율화
	자의적 비관세 장벽 해소 지원	· 대미 수출쿼터 제한 등 가능성 높은 비관세 조치 선제 대응 · EODES, AEO-MRA 체결 확대
	글로벌 환경규제 사전 대비	· 탄소배출량 이력·정보 관리 시스템 개발 및 무료보급 · CBAM 발효 전 협업 활성화·맞춤형 컨설팅 제공

2) 경제회복 총력 지원

반도체·조선·바이오 등 첨단 수출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세가공 분야 16개 규제를 혁신합니다. 중소기업 수출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간이정액환급 대상에 32개 품목을 추가하여 원자재 수입 시 납부 관세를 쉽고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세정지원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확대하여 소상공인 수출시장 진출을 지원합니다.

분야	중점 추진과제	내용
경제회복 총력 지원	첨단 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첨단·핵심산업의 보세가공제도 규제 혁파(star전략) · 주요 K-수출품목 중점 지원 분야 지정 ·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
	수출입 기업 세정지원 확대	· 혁신과 수출역량 제고에 주력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세정지원 확대 · 관세환급절차 간소화 · 예방 중심 관세조사 운영
	안정적 세수관리 및 국가재정 뒷받침	· 세수 관련 지표 상시 점검 ·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3중 관리 체계* 운영 * 주기적 납세도움정보 제공, 세액심사, 관세조사 · 악성 체납 엄정 대응

2. 사회안전 분야 관련 주요사항

1) 국민안전 위해물품 차단

마약단속 국제공조 파트너를 미주·유럽 국가 및 관련 국제기구로까지 확대하고 협업을 상시·정례화 합니다. 열화상 탐지기 등 첨단장비 도입을 계속하고, 엑스레이(X선) 판독훈련센터 등 마약차단 역량 강화 시설도 확충합니다. 전자상거래를 악용한 불법행위 근절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개인통관고유 부호 갱신·직권정지제도를 도입하여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합니다. 해외직구 안전성 분석 대상 물품을 확대하고, 기존 측정이 불가했던 유해물질도 민간 전문 분석기관과 협업, 판별합니다.

분야	중점과제	내용
국민안전 위해물품 차단	스마트 마약단속체계 2.0 고도화	·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 정례화 · 국내외 수사기관 공조 확대 · 탐지 시설·장비 확충 등 「스마트 마약단속체계 2.0」 고도화
	국경기관 간 협업체계 확대	· 국민안전 정보협업팀 중심 타 국경기관과 협업분석 확대 · 세관장 확인 일몰제 도입 · 우범여행자 여권정보 등 위험관리에 필요한 정보교환 확대
	전자상거래 악용 불법행위 차단	· 해외 플랫폼의 자발적 협력 유도 ·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예방을 위한 1년 단위 갱신제 도입 · 안정성 분석 대상물품·탐지성분 확대

2) 경제안보·공정무역 질서 확립

“본청 무역안보수사 태스크포스(T/F)” 를 더욱 활성화하여 무역을 매개로 산업기술·영업비밀 등을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관세청 수사 기능을 확대합니다. 외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 외국환거래 법규준수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 외환거래 업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정기 외환검사” 제도를 신규 도입합니다.

분야	중점과제	내용
경제안보 공정무역 질서 확립	경제안보 수사체계 강화	· 무역안보수사 TF 운영 활성화 · 산업기술·영업기술 수사권한 확대 · 전략물자 요건심사 전담세관 도입
	무역·외환범죄 엄정 단속	·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보험재정·공공조달 부정 행위 엄단 · 정기 외환검사 제도 도입 * (현행)불법거래 의심업체 선별, 기획검사 → (개선)일정규모 이상 외환거래 업계 정기 점검 · 검찰·법원과 사건경과 실시간 공유
	국내산업·소비자 보호 강화	· 국내 유통 국산물품 원재료에 대한 국내생산 입증제 도입 · 우회덤핑방지제도 신규 시행으로 K-브랜드·소비자 보호 강화

3. 글로벌 관세행정 선도 분야 관련 주요사항

미·일·중·베트남·싱가폴 등 핵심 교역국 관세당국 관계자가 참여하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통관절차소위(SCCP)를 올해 2회(2월·7월)에 개최합니다. 세계관세기구(WCO)의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 국제표준을 완성하고, 자유무역협정(FTA)·특송통관·엑스레이 판독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제도 및 전산시스템이 새로운 국제표준으로 제정되도록 국제 회의를 주도하고 아프리카·중남미 등 개도국에 적극 전수합니다.

분야	중점과제	내용
글로벌 관세행정 선도	아태지역 국제협력 강화	· '25 APEC 통관절차소위(SCCP) 성공 개최 총력 지원 · 세관상호지원협정 제·개정 등 아태지역 국제협력 강화
	관세행정 모델의 글로벌 확산	· WCO e-C/O 국제표준 완성 및 차기표준 선점 분야 발굴 · 글로벌 감각과 업무 전문성을 겸비한 협력인재 양성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촉진	· 원산지 관리시스템 보급 확대 · 「시그니처 ODA 사업」을 아프리카·중남미 국가에 전수

IV. 시사점

관세청 업무계획을 살펴보면 세수관리를 위하여 3중 관리체계 도입, 국경관리 기관과의 협업 분석, 전략물자 요건심사 전담세관 도입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기 외환검사제도가 도입되고 검찰 및 법원 등 유관기관과 사건 경과를 실시간 공유하면서 무역 및 외환범죄 엄정 단속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따라 각 기업들은 관세 및 외환 관련 전분야에 대해 주요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대비책등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다수의 관세 및 외환 사건을 대리하면서 다양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관세 및 무역 Compliance 자문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객들께 실무 맞춤형 해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는 세미나(2월 진행 예정) 등을 통해 관세청의 관세조사 및 외환검사 동향과 대응 방안 정보를 고객사에 제공할 예정인바, 관세 및 외환 분야 전반에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구성원

주성준

변호사

T 02.3404.6517

E seongjun.joo@bkl.co.kr

서승원

변호사

T 02.3404.0964

E seungwon.suh@bkl.co.kr

장승연

외국변호사 (Ohio)

T 02.3404.7589

E maria.chang@bkl.co.kr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뉴스레터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위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